

‘기’의 발끝, 英 그라운드 들었다 놨다



“아싸~ 골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의 기성용(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풀럼과의 원정경기에서 골을 성공시킨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홍명보, 다른 조언 불필요”

2002 4강 신화 주역들 한자리… 히딩크 감독 덕담

“홍명보 감독에게 다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낙 경기도 많고 영리하니까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쓴 핵심요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브라질 월드컵에 나서는 홍명보호에 덕담을 전했다. 거스 히딩크 감독, 김태영, 이을용, 윤정환, 송종국, 최진철, 유상철, 이영표는 12일 서울 남산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모여 얘기꽃을 피웠다.

정봉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히딩크 감독의 방한에 맞춰 한국 축구 대표팀에 힘을 싣자는 취지로 마련한 오찬이었다. 히딩크 감독은 최근 무릎 수술을 받은 터라 오른 다리를 활체어에 고정한 채 등장했다.

옛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양호한 친구들을 보인 히딩크 감독은 홍명보호의 올해 월드컵 도전과 관련해 취재진과 짧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조언이 필요없을 정도로 홍명보호를 믿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되풀이됐으나 작은 경고도 드문드문 있었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이 쉬운 조에 편성됐다는 말이 있지만 마냥 쉬운 조로만 볼 수는 없다. 특히 알제리를 절대로 자평가 해서는 안 된다”며 “고온다습한 브라질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체력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히딩크 감독은 홍명보호가 빠른 공격축구라는 강점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드컵은 선수들에게 몇 경기밖에 안 되는 중요한 무대다. 그 때문에 선수들이 주눅 들거나 걱정해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명보 감독이 자신에 못지않은 러시아 전문가라는 견해도 히딩크 감독의 입에서 나왔다.

히딩크 감독은 “홍 감독과 러시아 클럽 안에서 많이 얘기했다. 홍 감독은 충분히 경험이 있고 국제무대에서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영리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사령탑을 맡은 적이 있는 조별 리그 상대 러시아에 대한 특별한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뒤따랐다.

베테랑 미드필더 박지성의 대표팀 복귀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히딩크 감독은 “내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고 판단도 불가능하다. 박지성 얘기를 들어보고 무엇이 한국 축구에 좋은지 잘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브라질, 미국 전지훈련을 앞둔 홍명보 감독은 이 날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12일 아메리카컵 7차 대회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 남자 4인승 대표팀의 원윤종, 석영진, 전정린, 서영우(왼쪽부터).

‘쾌속 질주’ 봄슬레이

男 4인승 사상 첫 국제대회 ‘금’…소치 출전권 획득

한국 봄슬레이가 남자 2인승에서의 맹활약에 이어 남자 4인승에서도 사상 첫 국제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고 2014 소치 대회 결과에 따라 4인승에서도 종합 우승을 노릴 수 있다.

파일럿 원윤종(경기연맹)과 푸시맨 석영진·전정린, 브레이크맨 서영우(경기연맹)로 구성된 남자 4인승 대표 A팀은 12일 미국 레이크플래시드에서 열린 아메리카컵 7차 대회에서 1·2차 레이스 합계 1번 53조52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대표팀은 2차 레이스에서 57조39로 4위에 그쳤지만, 1차 레이스에서 56조13으로 1위에 올라 미국(1분53조70)과 일본(1분53조81)을 제쳤다. 한국 봄슬레이가 4인승에서 국제대회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원윤종이 조종간을 잡고 아메리카컵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 이후 1년간 한국 대표팀은 아메리카컵에서 6개의 금메달을 수확했지만 모두 2인승에서 나왔다.

봄슬레이에서는 남자 4인승과 2인승, 여자 2인승 등 모든 종목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티켓을 얻었다. /연합뉴스



기성용 1골 1도움 활약…선덜랜드, 풀럼 4-1 승

“킬 패스, 역습의 교과서” 英 언론 극찬…‘평점 8’

결승골에 어시스트까지 더한 기성용(25·선덜랜드)에게 현지 언론의 호평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했다.

기성용은 12일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풀럼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원정경기에서 선덜랜드의 4-1 승리를 이끌었다.

정확한 킬을 토대로 한 위력적인 슈팅력과 볼 소유 자체로 상대를 진압시키는 정밀한 패스 능력이 경기 내내 기성용을 부각시켰다.

기성용은 전반 41분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풀럼의 골문을 갈랐다. 그가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고 나서 풀드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지난달 28일 에버턴과의 원정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지난 시즌 스완지시티, 올 시즌 선덜랜드 시절을 통하여 프리미어리그 첫 골을 넣었다.

지난달 18일 캐피털원컵 8강전에서 헬시를 상대로 터트린 결승골을 포함 시즌 3호골이다.

기성용의 활약 속에 선덜랜드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 최다득점이자 최다 점수차 승리를 거뒀다. 아울러 귀중한 승점 3을 획득, 승점 17이 되면서 19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기성용은 팀이 1-0으로 앞서던 전반 41분 오른쪽 측면으로 프리킥 상황에서 존슨이 골 지역 오른쪽에서 짧게 내준 볼을 받아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꽂았다.

2-1로 앞선 후반 24분에는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으로 침투하던 존슨에게 중원에서 스루패스를 찔려 빼기꼴을 어

시스트했다.

프리미어리그 주관 방송사인 ‘스카이스포츠’는 양 팀 선수를 통틀어 존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점 8을 기성용에게 부여했다. 이날 해트트리트를 작성한 존슨이 평점 9를 받고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다.

스카이스포츠는 “기성용이 첫 퀄드골을 터뜨린 데 이어 후반에 존슨에게 정확한 패스를 전달해 역습의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기성용의 밸류에서 시작된 선덜랜드의 세 번째 골은 이날 경기의 골 오브 더 매치로 뽑혔다.

스카이스포츠는 “역습 교과서에서 나올 골”이라며 “기성용이 반대쪽에서 쇄도하는 존슨에게 자로 잔 것처럼 공을 전달했다”고 호평했다.

축구 전문매체인 글닷컴의 영국판도 기성용에게 존슨 다음으로 후한 평점을 부여했다.

글닷컴 영국판은 기성용에게 4점(만점 5)을 주며 “감독이 기성용에게 원한 플레이가 바로 이런 것이다. 풀럼은 속이고 지능적으로 골을 터뜨렸을 뿐만 아니라 맷깥스러운 패스로 존슨의 골을 돋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또 기성용은 이날 멀티골 기회를 얻었으나 해트트리트를 앞둔 동료를 위해 이를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덜랜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기성용이 페널티킥 키카로 지정됐으나 3-1에서 얻은 페널티킥 기회를 존슨에게 내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맞춤 웨딩의 명소 신양파크호텔

2014년 신년 감사 웨딩 할인 축제
기간 | 2014년 2월~3월(2개월)

감사할인 특별메뉴 (200명 이상)

기타혜택: 객실 2실 무료제공, 꽃길 무료제공, 페백실 무료제공, 얼음조각 무료제공, 음주류 50% 할인, 웨딩캔들 50% 할인

Shin Yang Park Hotel 예약문의 062)221-4101~3